

광주-담양, 인문특구·생태관광벨트 구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통합 담양군 상생토크'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담양 발전 전략과 지역 변화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전남 시·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중인 상생토크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담양군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 이후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담양군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광주-대구 달빛철도, 제3순환도로(담양 대덕-화순) 확충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확산 ▲담양호·주월산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담양-광주-장성-화순 등을 하나의 '광주 경제권'으로 묶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소규모·의료·교육 등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 광역발전 비전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법에 담긴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특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담양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생태관광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법 특례·정부 재정지원 등 담양군민들과 직접 소통 3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 인문·생태 체류형 관광벨트 확충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상상... 담양의 문화·관광 혁신 이끌 것"

참석자들은 ▲5급3특 실현을 위한 광역 생활권 지정 ▲달빛철도 신속 추진 등 광역교통망 연계 ▲농민 소외 없는 보호정책 추진 ▲화장장 등 인프라 공동 이용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질문하며

통합 이후에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의 성공은 광주가 담양을 생각하고 담양이 광주를 생각하는 상생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서울이 아닌 인전남광주 시대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성 '다향울림촌' 차향과 함께 시골 여유가 묻어나는 풍족한 마을

전라남도가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산과 바다에 차향이 가득한 보성 '다향울림촌'을 선정했다.

보성 회천면의 다향울림촌은 '차의 향기와 소리의 울림이 널리 퍼지리라'는 뜻을 가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녹차의 고장 보성의 특색을 살려 남해의 풍경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로, 도시민이 농촌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적합한 마을로 인정받았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인 녹차족욕제를 통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차를 한 잔 즐기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보성의 명물인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준비됐다. 달콤하면서도 녹차의 깊은 풍미를 느끼는 녹차초콜릿 만들기 체험, 녹차와 숲을 이용해 만드는 녹차 환 안대 만들기 체험 등 다향울림촌만의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다향울림촌 5분거리에는 울포해수욕장과 해수욕센터가 있다. 울포해수욕장은 해수와 녹차가 만난 깨끗한 물로 녹차 해수탕을 운영하고 있다. 뜨끈한 바닷물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유명 관광지인 만큼 주변에 편의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화천수산물위판장이 근처에 위치해 신선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다향울림촌은 전 객실이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를 제공하며, 편백나무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문의, 가격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www.다향울림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다향울림촌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전국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우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속해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주택건설공사 '안전관리 우수현장' 첫 선정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안전행정 전환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을 선정해 표창하는 '주택건설공사 안전현장 선정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처분 중심의 건설현장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공 중인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구가 실시하는 정기·수시 현장점검 결과와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현장 1개소를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한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8개 주택건설공사 현장이 시공 중이며 평가는 2~11월 중 정기·수시 점검의 지적사항 수준과 개선 실적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항목은 ▲현장점검 지적 건수 ▲시정조치대장 운영 여부 ▲시정조치 적기 종결률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여부 ▲일반 건설사고 발생 건수 등이다.

서구는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현장의 총괄책임자(시공사·감리단)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건설현장에 공유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옥민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건설현장을 발굴·포상해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도서관에서 함께 책 읽어요'... 독서동아리 모집

9일부터 모집, 도서 구입·활동 공간·물품 등 종합 지원

리에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 도서 구입 비용과 독후 활동 물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모임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도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기존 공립 작은도서관에 더해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활동 공간 지원 범위를 확대해, 동아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활동 공간 지원 대상은 ▲구립도서관 책정원 ▲계림꿈나무도서관 ▲다복마을도서관 ▲지원2동 작은도서관 ▲학운동작은도서관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된 동아리에 한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4월부터 본격적인 독서 활동을 시작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등록 동아리에 대해서는 동구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활동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 안정적인 모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구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도서관(☎062-608-4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철수 기자

남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동행'

학로를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농성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성초등학교와 백운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효덕초등학교, 대촌중앙초등학교, 불로초등학교, 조봉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 진제초등학교,

효전초등학교, 학강초등학교이다.

또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교통안전 지킴이는 총 31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에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주민들로, 남구는 교통안전 업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도 큰 관심

과 책임감이 있는 분들을 선발했다.

교통안전 지킴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12개 초등학교 학생 131명과 함께 등·하교에 나서며,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집 앞에서부터 동행하거나 약속 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난 뒤 학교까지 동행한다. 남구 관계자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일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